
2018년도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결과보고서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2018. 11. 6. ~ 11. 11.(4박6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I. 연수 개요	2
II. 연수 일정	3
III. 연수 내용	
1. 연수국가 현황	4
• 말레이시아	4
• 싱가포르	6
2. 방문지별 주요 연수내용	7
【 말레이시아 】	
• 말라카 역사·문화유적 탐방	7
• 반딧불 문화 체험	8
•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방문	9
• 시티갤러리	10
• 시장방문(센터럴마켓&초우킷 재래시장)	11
【 싱가포르 】	
• 뉴워터 방문자 센터	12
• 가든스바이더베이	14
• 마리나버라지 뉴워터	16
• 주룽 새 공원	17
IV. 연수 소감	18
V. 연수결과(총평)	25

2018년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 연수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연수목적

- 국외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도시환경, 문화관광 자원 등에 대하여 비교견학 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고,
- 비교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 및 개발하고자 함.
- 국제적 안목과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함

□ 연수기간 : 2018. 11. 6.(화) ~ 11. 11.(일) <4박6일>

□ 연수인원 : 12명(의원 8, 직원 4)

□ 연수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성 별	비고
의 원	의 장	차 * *	남	
	부 의 장	임 * *	남	
	의 원	김 * *	여	
	의 원	고 * *	남	
	의 원	심 * *	남	
	의 원	김 * *	남	
	의 원	오 * *	남	
	의 원	이 * *	남	
직 원	전문위원	오 * *	남	
	의사담당	최 * *	남	
	주 무 관	남 * *	남	
	주 무 관	신 * *	여	

2

연수 일정

구분	장소	상세일정
제1일 (11/06) 화	인천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도착 - 탑승수속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도착
제2일 (11/07) 수	말라카 쿠알라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유적탐방 - 네덜란드 광장, 산티아고요새 - 세인트폴 성당, 그리스도 교회 ◎ 반딧불 문화 체험
제3일 (11/08) 목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로나스트윈스 빌딩 견학 - 스카이브릿지 및 전망대 ◎ 시티갤러리 방문 ◎ 전통시장 방문 - 센트럴마켓(문화유산 지정) - 초우킷 시장 ◎ 창이 국제공항 도착
제4일 (11/09) 금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워터 방문자 센터 방문 - 싱가포르 물 관리 및 이용 교육 센터 ◎ 마리나베이 샌즈 견학 ◎ 가든스바이더베이 견학 - 인공식물원 및 휴식처 조성
제5일 (11/10) 토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토사 해양박물관 견학 - 싱가포르 항만 전시관 등 ◎ 센토사섬 일원 견학 - 북미회담장소, 수족관, 스타이워터 등 ◎ 마리나버라지 뉴워터 방문(하수처리 기관) ◎ 주룽 새공원
제6일 (11/11) 일	싱가포르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이 국제공항 - 인천항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3

연수 내용

1. 연수국가 현황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78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반도 11개 주가 통합하여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1963년 싱가포르·사바·사라와크를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행정구역은 13개 주와 1개 연방 준주, 3개 시(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로 이루어져 있다.

■ 일반현황

- 위 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 면 적 : 329,847km²(세계 67위)
- 수 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종족구성 : 말레이인(50.4%), 중국인(23.7%), 원주민(11%), 인도인(7.1%), 기타(7.8%)
- 공 용 어 : 말레이시아어

- 종교 : 이슬람교(60.4%), 불교(19.2%), 기독교(9.1), 힌두교(6.3%)
- 정치체 : 입헌군주제
- 통화 : 링깃(Ringgit, RM)
- GDP : 3,649억\$ 세계36위 (GDP : 국내총생산)
- 인구 : 3,200만명

싱가포르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건설 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자유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단원제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고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한다.

■ 일반현황

- 위 치 :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섬
- 면 적 : 697km²(세계 192위)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종족구성 : 중국인(76.8%), 말레이인(13.9%), 인도인(7.9%), 기타(1.4%)
- 공 용 어 : 중국어, 영어, 말레이어, 타밀어
- 종 교 : 불교(42.5%), 이슬람교(14.9%), 도교(8.5%), 힌두교(4%)
가톨릭교(4.8%), 기타 기독교 (9.8%), 기타(0.7%), 무교(14.8%)
- 정 체 : 공화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 통 화 : 싱가포르 달러 (S\$)
- G D P : 3,496억\$ 세계37위 (GDP:국내총생산) *한국 : 세계12위
- 인 구 : 579만명 (2018년) *한국 : 5,163만명

■ 비행 경로 : 인천 → 말레이시아 (5시간 30소요) / 시차 : 1시간



2. 방문지별 주요 연수내용

① 말라카 역사·문화유적 탐방

-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150km 떨어져 있어 약 2시간 30분간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말레이시아의 역사도시인 말라카 이곳은 역사뿐만 아니라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도시였다.
- 해안에 위치한 말라카는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등 여러나라에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한 사정으로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로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네덜란드 광장



세인트폴 성당 전경



세인트폴 성당 내부



말라카 강 전경



산티아고 요새

- 세인트폴 성당은 포르투칼이 지은 성당으로 말라카 전쟁에서 네덜란드에게 패해 빼앗겼던 성당으로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산티아고요새는 포르투칼이 네덜란드 침공을 막기 위해 지었다고 함.

❖ 시사점 ❖

- 말라카는 대한민국의 일제 강점기, 개항기 시대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고, 전쟁의 아픔을 느끼게 함. 하지만 아름다운 말라카 강 전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음
- ▶ 과거 아픈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과거를 잊지 않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② 반딧불 문화 체험

- 배를 타고 주변 반딧불이를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었는데 강 주변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이 놀라운 광경이었음
- 아쉬운 것은 반딧불이를 직접 만져 보고 사진 촬영도 하고 싶었으나 어두운 곳에 배를 타고 보는데 만족해야 했다.
셀 수 없는 많은 파란 불빛이 반짝거리는 광경이 꿈속에서 배를 타

고 건너가는 기분이었고, 과거 한 두 마리 시골에서 보았던 그 반딧불이가 이렇게 수만 마리가 서식하는 이곳이 환경오염으로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우리 실정이 아쉽기만 하다.



반딧불 체험장 입구

❖ 시사점 ❖

- 오염되지 않은 천연자원을 그대로 살려 관광자원으로 이용
- ▶ 국내에도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있는데, 장성 황룡강도 지방하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주변 환경을 잘 정비하여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③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방문

- 1998년에 준공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는 그 높이가 451m, 88층 쌍둥이 빌딩으로 세계 최고의 빌딩으로 통한다고 한다.
책에서만 보았던 건물을 외부에서 보니 정말 장관이었다.
- 이 건물 한쪽은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공동으로 건설했고, 우리의 건설 우수 기술은 이때부터 알려졌다고 한다.
이쪽 관계자는 이 타워 자체는 말레이시아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 했다.



다른 나라 방문객과 함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앞에서

❖ 시사점 ❖

- 말레이시아의 상징,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 ▶ 장성군의 상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황룡강의 엘로우시티 장성, 노란꽃, 황룡 등 어떤 도시의 상징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장성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본다.

4 시티갤러리

-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한데 모아서 전시하는 공간
- 영국의 식민지 시대의 아픈 현실과 연대별로 쿠알라루푸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현지 가이드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도시 전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조명과 함께 영상을 보여줌.



시티갤러리 가이드 설명

❖ 시사점 ❖

- 시티갤러리에는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미래의 설계 내용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음.
- ▶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장성의 역사는 군사와 읍면사 책자가 전부인 것 같다. 문화원에 장성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⑤ 시장방문(센터럴마켓&초우킷 재래시장)

- 센터럴마켓은 말레이시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수민족의 수공예품 등을 주로 판매하고, 가볍게 멜 수 있는 가방에서부터 약세사리, 지갑 등 여행자들이 기념으로 구입할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주말에는 마켓 주변에서 민속 음악이나 춤 공연이 진행된다고 한다. 마치 보세가게와 골동품 가게를 합쳐놓은 중국풍의 마켓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초우킷 재래시장은 말레이시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다름이 없지만 다른점은 식육, 채소, 과일 등 모든 종류의 상품들이 잘 정리 판매되고 있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보니, 고기 등 역겨운 냄새에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센터럴 마켓 이용권



초우킷 재래시장



센터럴 마켓

❖ 시사점 ❖

- 센터럴마켓에는 화장실 이용 시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화장지도 내부에는 없고 화장실 입구에 사람이 지키고 화장지를 몇 칸씩 준비해서 주고 있었다.
- ▶ 대한민국만큼 공공시설 부문에서 복지가 잘 된 곳도 없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공공화장실이 많이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요금을 내는 곳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공공시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가지라고 한다.

⑥ 뉴워터 방문자 센터

- 이곳은 수돗물 정수 방법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정수장에는 뉴워터 핵심 기술인 막 여과 시설을 외국의 상수원 기관과 여

행객이 이곳을 보기 위해 매일 공식 방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 정수 기술 및 교육시스템과 홍보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되어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뉴워터 방문자 센터 앞에서



센터 내 교육 중



생산한 정수물



정수된 물속의 잉어



센터 방문한 싱가포르 학생들과 함께

- 여기서 생산된 PET 생수는 하수를 고도 처리하여 재탄생한물로써 각종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나누워 주는 한편, 총리를 비롯해 정부 각료들이 앞장 서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스스로 수질에 대한 안정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 물의 소중함과 함께 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이곳은 싱가포르 학생들의 견학 장소이기도 했다.
- 싱가포르에서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하는 것, 둘째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물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로 빗물을 정수하는 방법, 넷째로 해수를 담수로 처리한 방법이 그것이다.

❖ 시사점 ❖

- 작은 도시국사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로 통하지만 이 작은 도시는 물이 부족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부족한 물을 고도의 기술로 해결하고 홍수와 가뭄까지 대비함.
- ▶ 이곳은 어린 학생들에게 각종 하수물, 빗물, 해수 등을 고도의 정화 기술로 담수화 시키는 절차와 함께 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장소로서 물에 대해 부족함을 모르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가 아닌가 싶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도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아끼는 교육을 해야 할 것임.

7] 가든스바이더베이

- 이 곳은 폭포와 함께 있는 거대한 식물원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수많은 수생식물과 장식물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 잡기 충분했다.
- 층층이 꽃과 수생 식물들이 조명과 함께 꾸며져 있어, 가볍게 사진만 찍어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 같다.
 시원한 실내 폭포와 함께 고층 다리에서 식물들을 관람하는 광경은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이었다.



플라워 돔 안에서



플라워 돔 인공폭포



실내 장식품



수생식물



클라우드 포레스트

❖ 시사점 ❖

- 거대한 실내 돔 식물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 ▶ 보통 식물원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고층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식물, 폭포, 장식물 등 조명과 함께 연출되는 돔으로 만들어진 식물원은 한마디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장성의 노란꽃잔치도 이와는 좀 다른 경우지만 특색있는 아이디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⑧ 마리나버라지 뉴워터

- 싱가포르의 친환경 담수화 시설인 이곳은 바닷물을 큰 댐을 경계로 담수화 시켜 식수로 공급하는 한편, 가뭄과 홍수까지 대비하는 시설
- 이곳 옥상에는 잔디로 넓은 광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해 놓았다.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이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연구해야 할 것 같다. 마침 안산시청에서도 담수화 정화 기술과 시설들을 벤치마킹하러 이곳을 찾아왔다.



마리나버라지 옥상 잔디 광장



담수화 처리 시설



담수화 처리 시뮬레이션 장치



마리나버라지 캐릭터

❖ 시사점 ❖

- 생활하수를 먹는 물로 만드는 우수한 정화 시스템 및 기술
-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정수장 및 상수원이 얼마나 잘 처리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깨끗한 물 관리를 해야 할 것임.

9 주룽 새공원

- 이곳은 약 600종, 8,000마리의 새들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 공원으로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간다고 한다.
- 전 세계의 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 20ha에 달하는 드넓은 숲에 펭귄, 홍학, 코뿔새, 펠리컨, 앵무새, 찌르레기 등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 이 곳이 더욱 인기 있는 이유는 새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 공연도 상시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도 30분간의 앵무새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벤트 공연

플라멩고

❖ 시사점 ❖

- 새의 천국 주룽 새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며,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 ▶ 장성 황룡강 부근에 앵무새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주룽 새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즉흥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외 의정연수를 다녀와서 〉

장성군의회의원

김 * *

싱가포르는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의 영토를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물 부족 국가이다.

싱가포르 역사도 물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1961년과 1963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담수가 모두 말라 바닷물을 공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강수량은 연 평균 2천300mm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 내에 강과 호수, 하천이 많지 않고 빗물 공간도 적어 자체적으로 빗물을 모아 확보 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전체의 물 수요의 20%에 불과하다는 자료이다.

자체 상수원이 없는 국가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만성적인 식수 부족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물 자원 확보 방안을 연구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인 PUB(Public Utilites Board)는 빗물 집수 20%,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수 수입 40%, 하수처리수 재이용 30%, 해수담수화 10%⁴ 가지 수도꼭지라고 불리는 수자원 공급원을 개발했다.

“뉴워터”란 하수가 깨끗하게 새로 태어난 물로 이 4가지 수자원 공급원 방법의 장단점을 이용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싱가포르’로 거듭난다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이라 엿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빗물과 해수, 그리고 하수를 울트라 여과막(UF) - 역삼투압(RO) - 자외선(UV) 소독 등 다중여과법 과정을 거쳐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재

생산으로 약 10m 깊이 48km 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정이나 공장, 산업시설 등에서 나온 하,폐수를 지하하수터널 통해 전국 4개 뉴워터 공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수를 다시 정수해서 상수원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물의 공급 흐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외국에서 돈을 지불하고 상수원을 끌어오는 것
두 번째 빗물을 받아 집수지에서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
세 번째 해수를 담수로 바꿔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것

뉴워터가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처음 선보인 것은 2002년 건국기념일(8월 9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해 마시는 PET 생수병에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재탄생한물을 넣어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나누워 주는 한편, 고속통 당시 총리를 비롯해 정부 각료들이 나서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스스로 수질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아직까지 PET병에 넣은 '뉴워터'를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라벨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제조해 각종 행사시 나눠주는 등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심어주는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목인 Somerset Road에 있는 '베독 뉴워터 팩토리 비지터 센터'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다녀가며,

수돗물 정수 방법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정수장에는 뉴워터 핵심 기술인 막 여과 시설을 외국의 상수원 기관과 여행객이 이곳을 보기 위해 매일 공식 방문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 정수 기술과 교육시스템과 홍보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하게 구축되어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는 '4청'이란 말이 있다.

물과 도로, 공기, 그리고 깨끗한 정부다.

그중에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물이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물 절약 방법 7가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1. 상하수도 요금 체크하기
2. 샤워시간 줄이기
3. 싱크대 물 받아쓰기
4. 빨래모아서 하기
5. 물 재 사용하기
6. 물이 새는 곳 바로 수리하기
7. 변기사용 물 반으로 줄이기이다

우리나라는 약 10년 후에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싱가포르 상수도 정책이 미래 한국의 상수도 모델이 될 것이다.

〈 연수 소감문 〉

장성군의회 전문위원

오 * *

○ 우리나라 건설의 위상과 매력적인 도시

- 제8대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일대를 둘러보았으며 연수일정을 통해 도시환경, 문화관광 자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도시계획과 도시정원, 문화시설 등 선진지 비교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이번 연수에서 말레이시아의 센트럴마켓은 값싸고 신선한 재료들로 이루어져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하는 등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88층 높이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한쪽은 일본 한쪽은 우리 기술로 건립하여 한국건설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센토사 섬 역사 문화관광시설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 도시계획시설을 둘러보았음
- 싱가포르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9%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1위(2017년 1인당 GDP 5만 7천달러)로 동남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 되었음
- 아울러, 좁은 국토를 체계적이며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시아 물류 허브도시로서 위상은 물론 경제, 금융, 관광의 중심지이자 여타 동남아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던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친환경적 도시계획 추진을 통한 “정원의 도시”로 건립하였음

- 우리 군도 황룡강을 가꿔 노란꽃잔치를 통해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시계획의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마스터플랜

-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컨셉플랜과 공원 및 수변계획, 아이덴티티 계획, 마스터 플랜, 개발지침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음
- 이 계획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정부가 합의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식적인 비전설정과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해서 개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수용해야 할 공공 공간계획을 개발사업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됨

- 싱가포르는 도시 및 지역의 탄탄한 미래상을 토대로 하여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함
- 또한, 민간개발자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의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있어 이를 따르면 개발과정 및 승인절차에서 공공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사익과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함께 조화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임

○ 연수소감

- 군 의원님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경험이었음.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살려 의원과 직원과의 결속을 다지고 선진의정활동이 우리 군 의정활동 추진시 반영이 되었으면 함
- 아울러 싱가포르의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사회시스템, 높은 준법의식과 문화의식 등 아시아에서도 몇 안되는 선진국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느끼고 좋은 점들은 본받아야 겠다고 생각됨

〈 연수 소감문 〉

장성군 의회사무과

주무관 신 * *

이번 연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2개 국가의 도시계획, 정원, 건축물, 문화관광시설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제8대 장성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실시하는 첫 연수인 만큼 감회가 새로웠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센트럴마켓이다.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닌 관광지로서도 자리매김을 하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값싸고 신선한 재료들을 주로 판매하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모습은 우리 내 5일시장과도 유사하면서도 달랐다. 잘 정돈되어 있었고, 품목별로 체계화되어 있어 시장을 찾는 이로 하여금 대형마트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이용객들도 많았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행정에서도 민관이 합동이 되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도시가 인접해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재래시장이라는 특성에 맞게 고유의 특산품만을 선별해 판매한다든지 대형쇼핑몰과는 차별화된 기획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느꼈다.

싱가폴은 도시전체가 숲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경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였다. 도시라고 하면 매연과 미세먼지 등으로 뒤덮인 회색풍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의 눈이 띄일 정도로 편안한 이미지로 다가왔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도시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URA 갤러리, 도심 속의 시민들의 휴식처를 잘 정돈해 놓은 보타닉가든(국립 식물원), 빗물을 모아서 운하의 물로 이용해 관광자원으로 만든

마리나베이 샌즈, 마리나 버리지 뉴워터, 하수처리 기관 등을 관람했다.

그 중, 도심 속 시민들의 힐링명소인 보타닉 가든은 영화 아바타의 촬영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전세계인들을 매료시켜 관광자원으로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황룡강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우리군은 이미 100만 관광객이 다녀간 노란꽃축제를 통해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보타닉 가든은 물과 꽃, 식물 등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관광지가 하나의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듯 했다. 우리군도 이와 같은 자원은 유사하다. 우리는 흔히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쉽게 지나가 버릴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 지역의 대표자원이 되고, 나아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세계적 수준의 상수도 수질관리사무소인 뉴워터(New Water)를 방문했다. 이 곳은 식수의 50%를 100년간 계약하여 말레이시아에서 공급 받고 있고, 30% 정도를 뉴워터(New Water)에서 나머지 20% 정도를 해수 담수화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하수를 재처리해 식수에 버금가는 수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니, 국가적 차원의 시설투자와 영토가 한정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자원개발과 수급,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정책 등 우수한 기술개발 정책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22세기는 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식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는 싱가포르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은 물 한방울도 허투루 쓰지 말자고 했던 우리의 70~80년대 모습을 회상하며, 현재를 반성하고 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오폐수 정화시스템의 선진기술 도입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외 의정연수는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동남아 선진국가의 도시행정계획, 도시정원, 문화 관광 등 분야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장성군의회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 폭넓은 의정활동의 능력을 배양하고 배우고 느끼고, 또 아쉬운 점도 많았던 의정연수였다. 이번 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도시국가의 장기적 플랜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같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과 주변의 시선만을 생각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옐로우시티 장성을 추진해 나간다면,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는 더욱더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2018. 11.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와서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